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July No.114

Contents

시황 및 추천펀드

- CIO 칼럼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CIO 칼럼

미 연준의 스탠스 변화, 물가 우려로 금리 인하 힘들 듯

6월 FOMC에서 신임 의장은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연준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3.6%로, 내년 전망치는 2.2%에서 2.3%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2차 파급효과와 기대인플레이션 상승 가능성을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하였습니다.

점도표 역시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재 3.5%인 기준금리를 연내 두 차례 인상해 최대 4% 수준까지 올리고, 내년도에 추가로 1회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시장은 연내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하며, 특히 2년물 등 단기금리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당초 연내 동결 또는 1회 인하를 예상했던 시장 기대도 크게 후퇴하였으며, 달러 인덱스가 급등하는 등 외환시장 역시 긴축 시나리오를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당사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이후 유가의 급락으로 우려했던 물가 우려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며, 고용시장의 둔화 흐름을 감안할 때 연준은 하반기 동안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합니다.

6월 FOMC 경제전망; '26~'27년 물가 전망치 상황

Variable	Median ¹			
	2026	2027	2028	Longer run
Change in real GDP	2.2	2.3	2.2	2.0
March projection	2.4	2.3	2.1	2.0
Unemployment rate	4.3	4.3	4.2	4.2
March projection	4.4	4.3	4.2	4.2
PCE inflation	3.6	2.3	2.0	2.0
March projection	2.7	2.2	2.0	2.0
Core PCE inflation ⁴	3.3	2.5	2.1	
March projection	2.7	2.2	2.0	

* Source : F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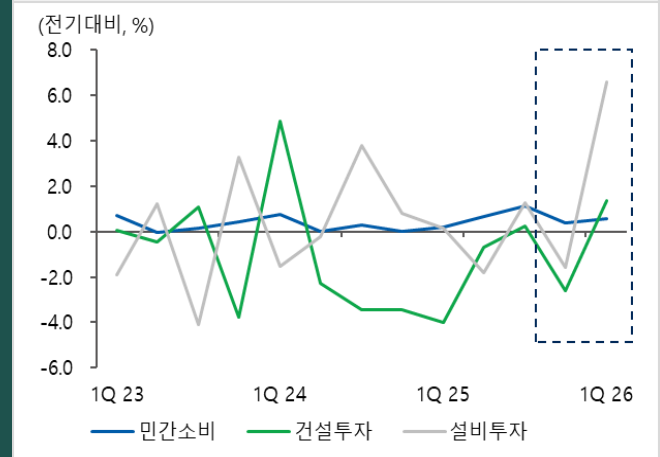
韓銀 연내 2번 기준금리 인상, 내년에도 추가 금리 인상 가능

반면 한국은행은 연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상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은행은 고유가에 따른 물가 상승과 2차 파급효과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반도체 업황 호조에 힘입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8%까지 상향하는 등 성장과 물가 모두를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원-달러 환율과 재상승 조짐을 보이는 주택가격 등 금융안정 측면의 부담 역시 금리 인상 필요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세수 증가와 확장적 재정정책 가능성도 채권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한국은행이 올해 두 차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하나, 종전 이후 유가 안정에 따른 물가 부담 완화로 내년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거나 1회 추가 인상에 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시장금리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7월까지의 정책 기대와 경제 지표를 반영하며 혼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내수 회복으로 연결



* Source : 한국은행

한수일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채권/ETF운용부문 총괄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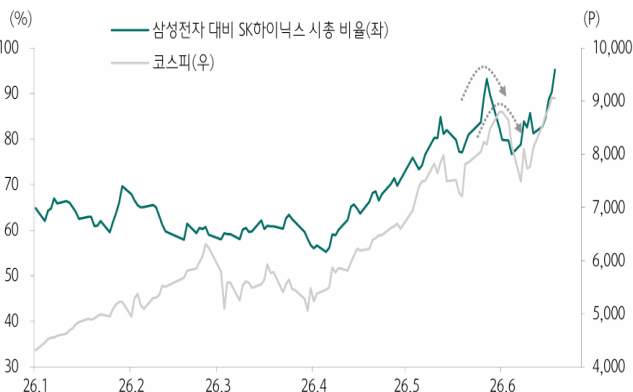
시장전망

6월 KOSPI는 9,000pt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였으나, 23일 하루 만에 9.99% 급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반도체 등 특정 섹터로의 극단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상승 온기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해 시장 폭(Market Breadth)은 취약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반도체 쏠림 장세 속에서 22일에는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통주 기준)의 시가총액을 추월하며 사상 처음으로 KOSPI 시가총액 1위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닌 기업이 KOSPI 시총 1위를 차지한 것은 지난 2000년 11월 이후 약 25년 만의 일입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 보험, 유통, 에너지 등이 상승한 반면 소프트웨어, 자동차, 철강, 화학 등이 부진했습니다.

시장의 이목이 집중됐던 마이크론(Micron) 실적발표(6/24)에서는 구체적인 장기공급계약(SCA)이 공개되며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반도체 업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평가되었으며, 마이크론은 메모리 반도체 수급이 2028년여야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란과 미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은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고 국제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이 실물 물가에 미치는 시차(Time Lag)를 고려할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속적인 경계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케빈 워시 의장이 처음 주재한 6월 FOMC는 예상보다 매파적이었으며, ECB와 BOJ를 비롯해 한국은행 역시 금리 인상 시그널을 강하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잭슨홀 미팅까지 이어지는 하반기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OSPI 지수 vs 삼성전자 대비 SK하이닉스 시총 비중



* 출처: 하나증권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주도코리아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세계정세 변화와 정부의 강력한 지원** 하에서 향후 급성장이 기대되는 산업/기업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

산업 예시



인공지능 인프라



원자력



방위산업



조선



신재생 에너지



ESS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2. **지배구조 개선, 수익성 향상 등 주주가치 재고** 움직임에서 투자 기회 포착

주주가치 재고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중복 상장에 따른 저평가 해소

배당 분리 과세에 따른 수혜 기대



주주친화적 기업의 재평가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3. **운용보수의 30%**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국내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기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 사회공헌활동에 사용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C	C-P1	C-P2
선취수수료	1%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62%	1.00%	0.70%	0.68%
운용보수	0.9%			
기타보수	수탁 0.02%, 사무관리 0.01%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5시 30분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2(3)영업일 적용, 제4(4)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펀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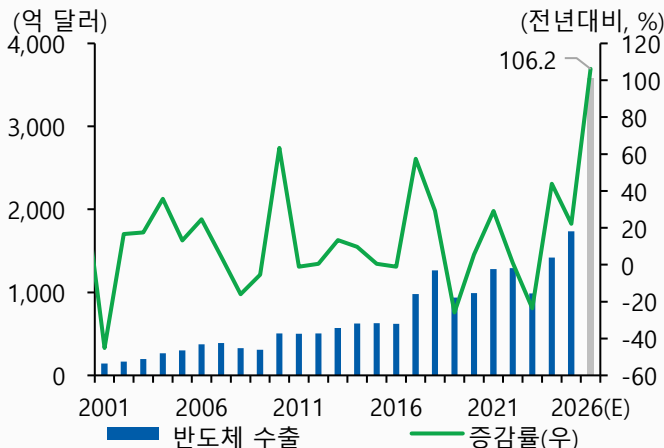
6월 국고채 금리는 중등 리스크와 유가·환율 변동성, 한은 추가 인상 경계, 매파적 FOMC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했습니다. 중순 이후 미-이란 종전 기대와 유가 하락으로 상승 폭은 일부 되돌렸으나, 7월 금통위 인상 경계와 국채 발행 부담이 이어지며 금리 하단은 제한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6/24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10.1bp).

7월 채권시장은 7월 금통위(7/16), 한국 2분기 GDP(7/23), 7월 FOMC에 주목하며 등락할 전망입니다. 7월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으나, 4월~6월까지의 반도체 수출 호조를 감안할 때 2분기 성장률도 양호할 가능성이 높아 올해와 내년 성장률 상향 및 추가 인상 경계감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월 금통위는 금리를 25bp 인상(2.50%→2.75%)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이란 종전 합의로 유가 상승 우려는 덜었으나, AI 투자 發 성장 모멘텀과 근원물가 상승 압력,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위험도 인상의 필요성을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수출 호조, 1분기 성장률 상향조정 등으로 성장률 추가 상향 및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매파적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결국 7월 금리는 금통위 이후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장 해석, 2분기 성장률 등이 관건입니다. 인상 선반영으로 추가 상승 폭은 제한될 수 있으나, 성장률 상향과 금융안정 부담이 유지될 경우 하락 여지도 크지 않아,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韓 반도체 수출 및 증감률 역대 최대 수준 기록 전망



* 출처: 산업통상부

* 26년 6월~12월까지 반도체 수출 월간 300억 달러 지속 가정(1~5월 실적 평균 295억 달러, 4~5월 실적 평균 345억 달러)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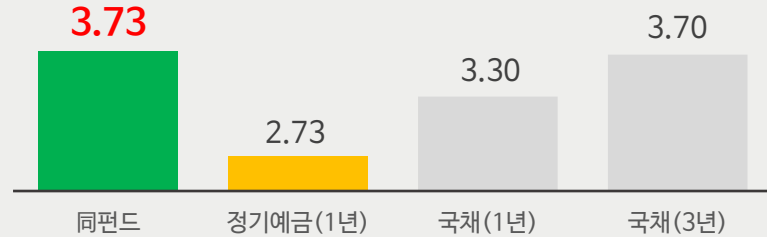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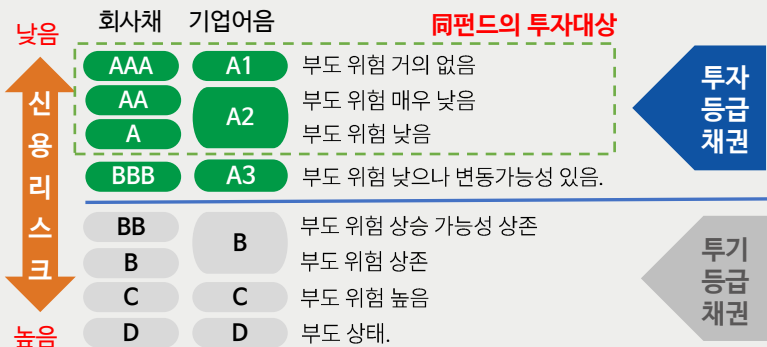
(단위: %)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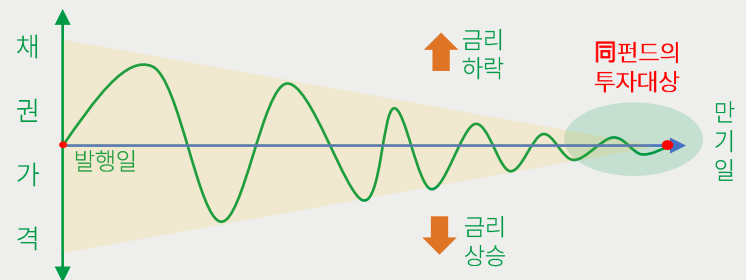
* 출처: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6월 30일 기준)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2	C	C-P1	C-P2
선취수수료	0.3% 이내	-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05%	0.30%	0.19%	0.18%
운용보수		0.075%		
기타보수		수탁 0.01%, 사무관리 0.01%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3(4)영업일 적용, 제3(4)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취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계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6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맞물리며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습니다. 월 초에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어 국제유가가 재상승하고, 미국의 5월 고용이 급증하며 금리 인상 우려에 시장 금리가 치솟자 스페이스X의 대형 IPO를 앞둔 미 증시는 투매 양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월 중순 미국과 이란이 종전협상을 위한 60일간 휴전 MOU에 서명하면서 시장은 빠르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신임 연준 의장 케빈 워치 체제에서 발표된 FOMC 결과는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타나며 시장에 충격을 야기하였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는 마이크론이 높은 변동성을 보였으나 시장 기대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하며 투자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반면 반도체의 핵심 수요처인 빅테크 회사들은 애플의 제품 가격 인상 등 높은 메모리 가격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7월 글로벌 증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실적 기대가 지속될 수 있을지, AI CapEx 투자를 통해 반도체 수요를 이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의 투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메모리 가격 상승이 물가와 금리에 미칠 영향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종목에 대한 쏠림이 과도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핵심 테마의 일중/일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가운데, 상승 테마에 대한 투자 비중을 유지하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 또한 시작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S&P500 대비 1년 상대 성과



* 출처: Bloomberg, NH-Amund자산운용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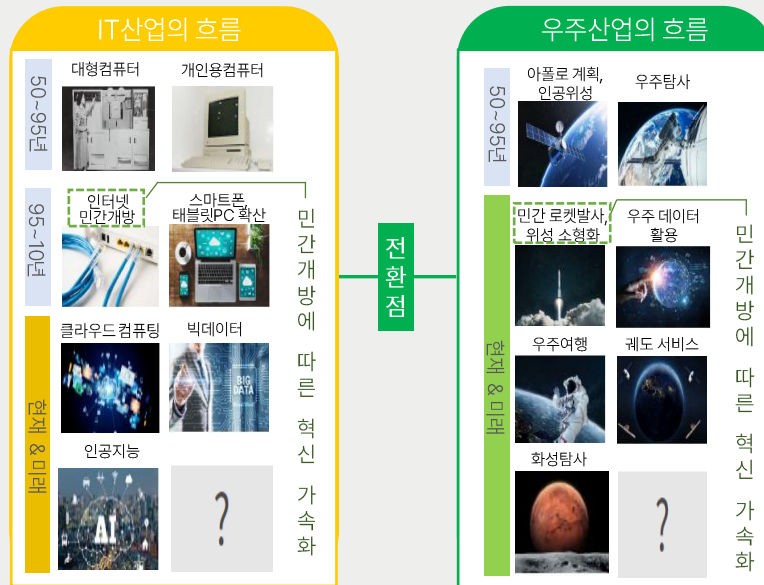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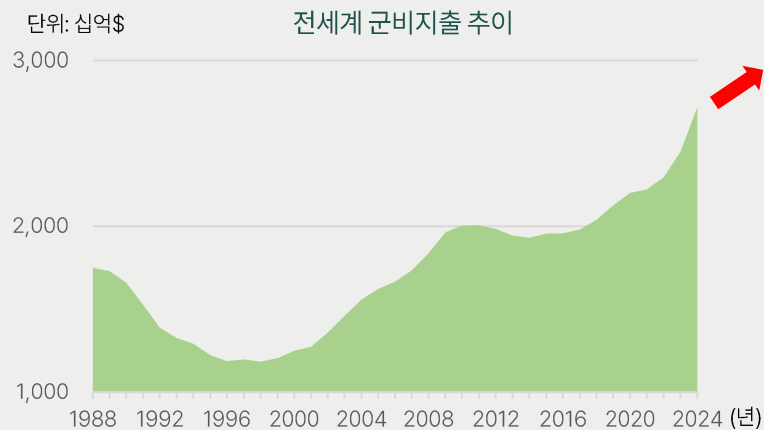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인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1.0% 이내	0.5%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70%	0.35%	0.85%	0.80%
운용보수	0.80%			
기타보수	수탁 0.06%, 사무관리 0.02%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4(5)영업일 기준, 제8(9)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 청구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6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높은 변동성을 보이며 월말로 갈수록 금리는 하락하였습니다. 6/15 미-이란은 60일간 휴전 MOU에 서명하면서 그 기간 안에 종전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합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WTI 유가는 5월말 \$90초반에서 6월말 \$70초반까지 빠르게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6/19 FOMC에서 올해 점도표가 1회 이상으로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미 국채 10년물은 하루만에 다시 상승하는 등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종전 영향이 더 크며 글로벌 금리, 특히 유럽 지역이 더 많이 하락 하였습니다. (미 10년물 -4bp, 독 10년물 -8bp,)

7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여전히 높은 변동성에서 당분간 박스권 움직임을 예상하지만, 결국은 금리 하락으로 방향을 잡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7월에 발표될 6월 물가에서 원자재 가격은 하락을 반영하나, 월드컵 기간의 높은 소비와 호텔 가격 상승 등 금리 하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있으며, 휴전 중에도 이스라엘-헤즈볼라의 국지전은 발생할 수 있어 변동성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미 금리인상이 올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이에 금리는 하락 방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달 추천해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펀드입니다. 듀레이션이 적당하며, 캐리가 많이 나오는 구조로 높은 변동성에도 꾸준한 수익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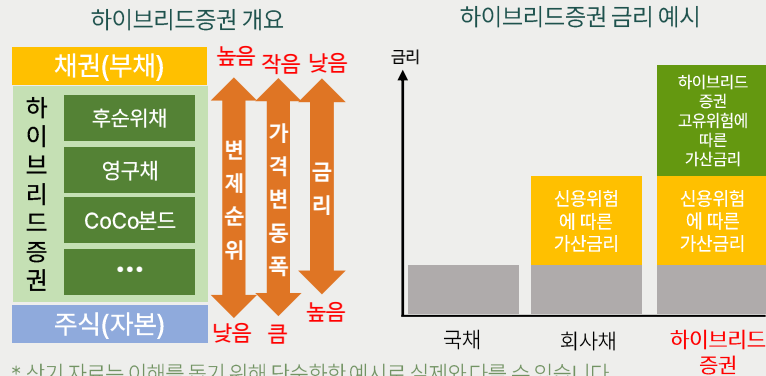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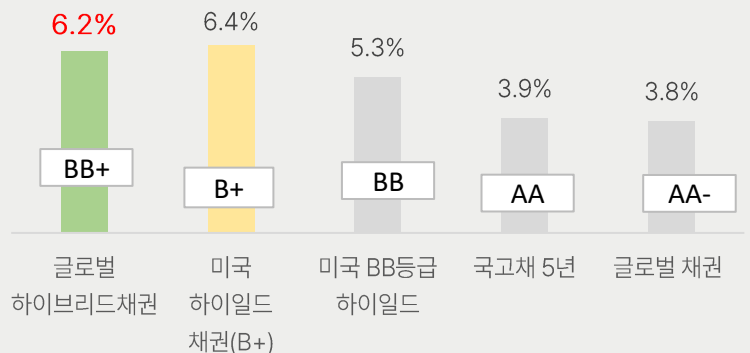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 2026년 5월 31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59% 달러/원 -0.91%) 수치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펀드 유형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종류(Class)	A	Ae	C-P1	C-P2
선취수수료	0.8%이내	0.4%이내	-	-
환매수수료	없음			
판매보수	0.50%	0.25%	0.45%	0.42%
운용보수	0.40%			
기타보수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7시 이전(경과 후) 환매청구: 제4(5)영업일 기준, 제8(9)영업일 지급
* 투자 전 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 필독
* 이 금융상품(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와 자료 내 포함된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성 종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